THE LABRADOR FROM CINCINNATI

Everybody Laughed.
The Dog Didn't.



FERDINANDO FREGA

CINCINNATI에서 온 래브라도

모두가 웃었다. 개는 웃지 않았다.

The P&G Saga · 18

언제나 같은 말을 하는 사회적 규칙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웃고 결혼식에서 운다는 것이다. 대부분에게 그것은 어떤 생각 속에 미소 하나를 남겼을 뿐이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본 사람들, 자신들이 다수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고집했다.

그것은 다섯 달 전 온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다. 한 달에 단 70달러로 웹 전체를 기어올라 다국적 기업들 자신의 검색어 맨 꼭대기까지 오르겠다고 — 돈도, 광고도, SEO도 없이 — 말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소식을 농담으로, 미소 한 번으로 받아들이고 아이러니한 면만 보았을 것이다. 그것이 증거일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이러니가 그것을 해낸 사람의 행동 속에만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아버지의 생신이었다. 이른 아침, 미리 알리지 않고 나는 아버지의 영원한 거처로 아버지를 뵈러 갔다. 묘지였다.

만남은 눈물과 미소가 뒤섞인 것이었지만, 결국 나는 내 방식대로, 이 이야기 안에서 아버지를 축하해 드리며 놀라게 해 드렸다 —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신 일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울고 있었다. 아내도 이날의 감정에 함께해 주는 줄 알았다. 아니었다. 아내는 우리 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 10살 된 아메리칸 래브라도로, 이제는 늙은

녀석이었는데, 3일 동안 먹기를 거부했고 아내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개 의사의 왕진조차 — 나는 그를 수의사로 승진시켜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 인간 의료의 흔한 악몽으로 변했다. 유료 왕진, 처방전, 검사. 그리고 그는 번쩍이는 새 차를 타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가 얼마나 영리한지 감탄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문제를 조사했고 원인을 찾아냈다. 아내가 녀석이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란 사료 브랜드를 바꾼 것이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어디서나 광고하는 10킬로그램짜리 대형 포대로, 내가 아주 잘 아는 회사의 제품이었으며, 값은 고작 25달러였다.

내 아내 Elisabetta는 더 싼 새 브랜드를 시험해 보았다. 포대에 암컷 아메리칸 래브라도가 그려져 있어서, 그게 녀석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 녀석은 그 브랜드를 원했다. 오직 그 브랜드만.

아내는 내가 놀리는 줄 알았지만, 내가 새 사료를 한 줌 집어 옛 포대에 넣자 녀석은 먹기 시작했다 — 그러고는 첫 입을 먹자마자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절대 자기를 속일 수 없을 거라고 말하듯이.

나는 이 모든 상황에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었고, 아내는 개가 죽어 가는 줄 알고 울고 있었고, 그 사이에 낀 딸은 우리 둘 다 바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개의 목줄을 잡고 산책을 나갔고, 반려동물 사료 가게 진열창 앞까지 걸어갔다. 거기, 바로 진열대에 녀석의 브랜드가 있었다. 녀석은 숨기지 않았다. 꼬리를 흔들고 짖으며, 저게 자기가 원하는 거라고 내게 말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설명했다. 우리가 지금 빠듯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녀석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브랜드는 내가 한때 기어올랐던 대상이며, 어쩌면 언젠가 녀석을 그 사업부의 책임자로 임명되게 해 줄지도 모르지만 — 당분간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녀석은 개였다. 그렇다, 그 점에는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녀석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다. 미국 개였고, 그것이 세상의 다른 모든 개보다 녀석을 유리하게 해 주었다.

우리는 집에 돌아왔고 녀석은 먹기 시작했다. 아내는 궁금해 죽을 지경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Cincinnati에 있는 한 다국적 기업의 PET&FOOD 사업부를 맡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더니 녀석이 나를 믿었다고 — Frega라는 이름의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그것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언제나 생각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Ferdinando